



드러남과 드러냄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87년 전 우리 선조들은 자유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념으로 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자유로운 나라로 태어날 것이며 그리하여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1863년 11월 19일 미국 대통령 링컨이 남북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 주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도록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행한 연설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게티즈버그 봉헌식 다음날 에드워드 에버렛(Edward Everett)은 링컨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단 2분 동안의 짧은 연설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골자를 제가 2시간 연설에서 했었다면 저는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에버렛은 당대의 유명한 웅변가로 링컨에 앞서 봉헌식에서 연설한 인물인데 그의 긴 연설은 잊혀지고 링컨의 짧은 연설은 오늘날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연설의 끝 부분인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정부라고 말한 것은 민주주의를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과 관련된 많은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다. 시간이 촉박했던 링컨은 봉헌식 당일까지도 연설문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 연설이 끝나고 링컨은 AP통신에 배포될 연설문의 일부를 수정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생존한 사람들은 여기에…”라고 쓴 초안을 “…여기에 봉납하기 위해”라고 고쳤으며, 연단에서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라는 말을 즉석에서 추가했는데 이는 1863년 초에 발표된 노예 해방 선언문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가호 아래”를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겨우 266 단어로 구성된 연설문은 “Four score and seven…”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성서에 나오는 ‘87’이란 숫자를 연상케 한다. 또한 연설의 최종 부분은 1850년 노예 해방을 설교한 파커(Theodore Parker)가 “미국의 이념은 민주주의에 있으며 이는 모든 인민의, 모든 인민에 의한, 모든 인민을 위한 정부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링컨은 봉헌(dedication)이란 말을 다섯 번 했는데 두 번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면서, 세 번째는 게티즈버그의 처참한 전장에서 산화한 군인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이곳의 일부를 봉헌”하기 위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미완의 임무”와 “우리 앞에 놓인 위대한 일”을 이

루기 위해 새로 태어난 국가 이념에 봉헌하지는 것이었다.

링컨은 뒷날 노예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고 1852년 장편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스토(H. B. Stowe) 여사를 만났을 때 부인의 손을 잡으며 “부인의 작은 손이 위대한 노예해방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상적 각고(刻苦)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작품으로 걸작인 라파엘로의 <아테네의 학당>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기 하늘과 땅을 향해 손을 가리키며 걷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장면은 위대한 두 고대 사상가의 철학사적 관계에 대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통속적 시각을 담고 있고, 이후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두 사상가의 철학을 비교하는 하나의 상징적 척도로 수용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세계를 불필요하게 이원화시키고 분리된 두 세계의 관계를 해명하는



플라톤을 직접 비판한 이래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의 존재를 규명하면서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와 대립된 사상을 견지했다.

향후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는 <아테네 학당>에 나타난 보편화된 통설에서 출발하는 대신 그 동안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사상적 각고의 흔적을 탐색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진가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키네(Edgar Quinet)는 프랑스의 역사가이며 문학자인 동시에 정치가로서도 활약했다. 그는 철저한 자유주의자로서 교회와 제정(帝政)은 자유를 속박한다며 공화제를 제창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초기의 공포정치도 자유를 파괴한다고 이를 배척했다.

키네는 1865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인 <프랑스혁명>(The Revolution)에서 프랑스혁명은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완성의 결과를 남겨두었는지 알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외쳤지만 어쩌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지 깊은 성찰을 해야 된다고도 했다.

화국수(華國手)

임진왜란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598년 여름 선조는 조정 대신들을 비상소집했다. 명의 찬취주사(贊劄主事)인 정응태(丁應泰)가 조선이 일본과 내응해 명나라를 공격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무함(誣陷)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발각 뒤집힌 조정은 최고의 사절단을 구성하고 우의정 이항복을 책임자로 선정하는 한편 문장력이 뛰어난 선비를 선발해 무고를 해결할 글을 짓게 했는데 27세의 신에 관료인 이정구(李廷龜)가 뽑혔다.

그의 글은 조선의 사정을 곡진하게 설명하고 정응태의 무고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변파(辯破)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로써 명 황제를 설득해 문제가 해결되어 정응태는 처단되고 황제는 조선에 대한 의심을 풀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정구는 나라를 빛낸 솜씨의 문장가라는 화국수(華國手)의 명예를 얻게 되었다.

7년 전쟁의 국난을 당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왕을 도와 국내의 어려운 사정을 슬기롭게 다스리고 명과의 외교 마찰을 지혜롭게 피해간 재상(유성룡)이 있었고, 왜군과의 싸움에는 육지(권율)와 바다(이순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명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선비(이정구)도 있었던 것이다. 🍵